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

사람은

集 집

을 위해

민

家

을

만든다

10.2.수 - 10.29.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올해 문화제의 주인공은 '서울시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가와 건축사사무소입니다.
건축물을 구상하고 현실화하는 장소를 매개로 관객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건축가의 작은 공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치 건축가가 잠시 자리를 비운 곳에 머무는 듯, 사무실 분위기와 건축가의 설계 과정 등을
상상하며 간접 경험함으로써 건축가와 관객 사이에서 열린 교감이 형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42회 서울시 건축상을 수상하신 건축가분들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건축문화제를 위해 애써주시고 도움주신 모든 참가자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김호민

평범한 민가를 통해 진정한 한국인의 집을 탐구하는 건축가로 현재 폴리머(poly.m.ur)의 대표이자
한국교육방송 건축탐구 집 프로그램의 프리젠티어로 대중과 소통하는 김호민 총감독은
에이에이스쿨, 코넬대학교, 서울대학교, 경기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으며,
대표작으로는 동대문 메리어트 호텔, 신사동 근린생활시설(신사블루스), 화동 근린생활시설,
구기동 주택(답하우스) 등이 있고, 저서로 <뉴욕, 런던, 서울의 도시재생 이야기>, <세포적 건축> 등이 있다.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

서울건축문화제는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회에서 출발, 수상자들만의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2009년부터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을 포함 서울건축문화제로 확대 개최했고, 매년 전시, 강연, 포럼, 답사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종합적인 건축문화 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시기간

2024년 10월 2일(수) ~ 10월 29일(화)
- 전시장소

서울도시건축전시관(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9)
- 관람시간

화요일-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 휴 관 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지정한 날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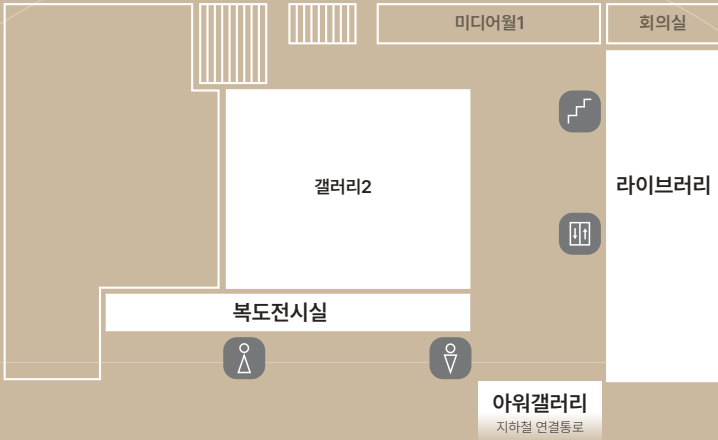
서울건축문화제 운영사무국
Tel: +82 337 2583
E-mail: saf2024@dnmd.com

오시는 길



전시 프로그램

지하2층



갤러리2

서울특별시 건축상 명예의 전당
(상설전시)

복도전시실

2024 대학협력
모아타운 프로젝트

아워갤러리

2024 빈집활용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홍보전

라이브러리

『2024 서울, 건축산책』 공모전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지하3층



비움홀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주제전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
(부제: 건축가의 테이블)

갤러리3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 특별전

특별전시실

제13회 UAUS 파빌리온 기획전
<Collage Haus : 주거의 재발견>

시민참여 프로그램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예약: '서울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이용

건축가가 들려주는 건축 이야기

2024 건축상 수상 건축가에게
직접 들어보는 건축물(수상작) 이야기

일시 10월 6일(일), 12일(토), 13일(일), 19일(토), 20일(일),
26일(토) 오전11시 / 오후3시
* 해당 회차 건축가 일정 및 정보는 '서울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확인

장소 지하3층 비움홀 라운지

수상작 투어

건축가 또는 해설사와 함께하는
수상작 투어

일시 10월 10일(목), 17일(목), 24일(목)
오후2시 ~ 4시

장소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 9작품 현장투어
* 자세한 투어 일정과 내용은 '서울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확인

건축문화워크숍

'집'을 주제로 나누는 다양한
시선의 건축 대담

일시 10월 8일, 11일(금), 18일(금), 20일(일), 22일(화)
* 회차마다 시간이 상이하므로 '서울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확인

연사 김호민(폴리머건축사사무소) 장윤규(운생동건축사사무소)
박현진(온디자인건축사사무소) 홍석규(큐엔파트너스건축)
전명희(별집부동산)

건축공간 사진 찍기

건축공간 촬영을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수상작 사진을 찍어보는 체험

일시 10월 16일(수), 23일(수)
오후2시 ~ 4시

강사 사이공간 건축사사무소 서성민 건축사 겸 포토그래퍼
* 장소 및 정보는 '서울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확인

나의 집 액자 만들기

자연물을 이용해 나만의 액자를 만들어 보는
어린이 대상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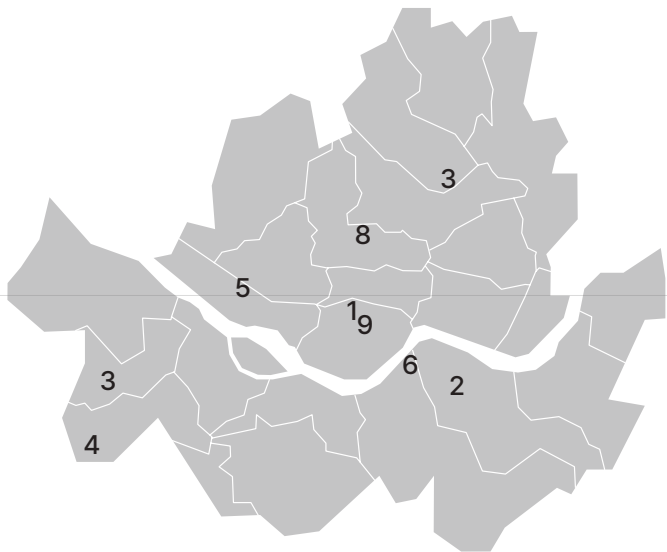
일시 10월 13일(일), 26일(토)
오후2시 ~ 4시

장소 옥상 서울마루, 지하3층 비움홀 라운지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부제: 건축가의 테이블)

지하3층 비움홀

1979년 시작된 '서울특별시 건축상'은 건축의 공공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뛰어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작품을 매년 선정하여 서울건축문화제 기간 내 시상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

1	대상	CLOUD
2	최우수상	강남구 웰에이징센터
3	최우수상	오동숲속도서관
4	우수상	9로평상
5	우수상	서교동 공유복합시설
6	우수상	신사스퀘어
7	우수상	연의생태학습관
8	우수상	원서작업실
9	심사위원특별상	경리계단길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

CLOUD 유아이에이건축사사무소(주), 큐엔파트너스건축 | 위진복, 홍석규

위치
용산구 신화로 95-9

연면적(㎡)
678.80㎡

용도
가설건축물

건축주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해방촌을 품은 새 지붕 ‘새로운 아케이드 프로토타입’

해방촌은 남산 고도 제한으로 인해 개발 높이가 제한되어 있다.

신흥시장은 건폐율이 100%를 넘는 상태로 개발 이익이 낮아 침체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석면 슬레이트로 되어있던 기존 아케이드는 2층 내민 슬라브에 올려져 층과 층을 단절해 채광과 환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그래서 아케이드를 옥상 너머로 들어 올려 비는 막고, 채광과 환기가 좋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공기충전방식 ETFE 막구조를 선택하였다. 99% 공기로 이루어진 막구조는 가벼운 상부, 하부 구조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수차레 구조계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직경 165mm의 스틸 파이프 기둥으로 최종 설계되었다. 전체 기하학은 남산 고도 제한선을 맞추며, 신흥시장 옥상 너머로 들어올린 롤러코스터 같은 복잡한 형태를 갖게 되었다. 기둥은 4개의 묶음이 하나의 세트로 총 12세트로 설계했다. 상부 기둥은 나무가지 구조로 상부 구조를 효과적으로 받쳐주고 있으며, 지상에서의 기둥 위치는 신흥시장의 상인들과 오랜 소통 후, 영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로 계획해 특별하게 휘어진 기둥이 되었다.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최우수상

강남구 웰에이징센터 (주)온디자인건축사사무소 | 박현진

위치
강남구 선릉로 108길 27

층수
지상 3층 / 지하 5층

연면적(㎡)
5,438.37㎡

용도
업무시설, 주차장

건축주
강남구 보건소

초고령 사회, 노인만을 위한 주차장이 있다 ‘낮은 주차장의 대변신’

2020년, 강남구는 공영 주차장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3층의 낮은 주차장을 웰에이징센터로 만들고자 했다. 설계의 모든 과정은 좁은 면적과 낮은 천정,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그 해결 과정의 최종 목적은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경쾌하고 기분좋은 공간이었다.

먼저, 설비 및 소방, 전기 등의 설비를 해결하고 바닥 온수 난방을 추가했다. 좁은 내부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칼라 패턴을 바닥에 적용하였는데, 이는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낮은 천정 느낌을 극복하게 하였다.

순환하는 복도를 따라 붉은 벽돌과 투명한 유리, 따뜻한 자작나무를 통해 다양한 내부 공간을 연출해 지루하지 않은 밝은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입구는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워 밝고 생동감 있는 외관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이중 외피로 주차장의 환기와 채광을 유지하면서 선정릉과 어울리는 밝은 색으로 연출하였다.

이제는 저녁에도 보행자가 걷기에 편한 건물이 되었고,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건물로 탈바꿈하였다.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최우수상

오동숲속도서관 윤생동건축사사무소(주) | 장윤규, 신창훈

위치
성북구 화랑로 13가길 110-10

층수
지상 1층

연면적(m²)
431.2m²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주
성북구청

중첩의 미학 '목재파쇄장의 환골탈태'

오동숲속도서관이 자리한 곳은 목재파쇄장이 있던 곳이다. 근방의 운동시설과 유아숲체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있었던 곳임에도 방치되어 왔다.

성북구는 오동숲의 풍경에 어울리는 공공심터를 계획하고 인근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계획하였다. 오동숲속길에 어울리는 산책로의 개념으로 연속된 길의 형식을 빌려 지붕을 만들었다.

지붕의 서로 다른 높이 차이로 인해 만들어진 틈으로 자연광을 쏟아낸다. 그리하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의 빛 아래 독서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부는 높이가 다른 책장을 연결하는 구성으로 산세의 콘셉트를 연결하였다.

벽에는 조망을 위한 창을 배치해 개방감을 확보했고, 자연채광과 어우러지는 반외부적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이 책장은 기존의 벽과 달리 책꽂이 월(wall)로서 유동적인 공간을 구성하여 서로 소통하고 통합되는, 혹은 적당히 독립되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졌다. 오동숲속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이지만 주변 자연요소를 실내로 유입시켜 새로운 공간감을 제공하고,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기에 충분하다.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우수상

9로평상 (주)이템건축사사무소 | 박희수

위치
구로구 서해안로 2134

층수
지상 8층 / 지하 1층

연면적(m²)
6,895.98m²

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건축주
㉔코이너스인터내셔널

풍경을 모으고 풍경을 조망하는 플랫폼

마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동네 어귀의 평상처럼 주변 공원의 고조력한 경치도 조망하고, 도시의 움직임도 관조한다. 공장과 카페, 성격이 다른 두 영역이 독립적이면서 보안적 관계를 모색하고자 ‘유리 속 유리’라는 개념을 차용한다.

두 개의 유리 분리막이 서로 다른 공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동시에 공유한다. 공장의 소음 차단과 온도 유지 등 민감한 환경을 물리적으로 막는 한편, 시각적으로 직접적인 관람을 유도하여 신뢰를 이끈다.

또, 건축 공간과 일체화된 콘크리트 가구로 변안된 평상은 공동체 마당, 외부 계단, 루프탑 등 각 층 사이에 연속성과 일체감을 부여한다. 층을 오르내릴 때마다 혹은 평상 자리가 달라질 때마다 조망점에도 큰 변화를 준다.

4층 외부 공간에는 온돌 평상이 있다. 추운 계절에 이용 시 사용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용자가 건축과 체온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정서적 사유를 유도하기도 한다.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우수상

서교동 공유복합시설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김태집

위치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41	층수 지상 7층 / 지하 3층	연면적(㎡) 17,590.02㎡	용도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건축주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	----------------------	--------------------	---------------------

지역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소셜라이징 플랫폼

서교동 공유복합시설은 1인 주거 환경의 다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적인 공간만 방 안에 담았다.

호텔이 갖는 부대시설의 강점을 통해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디자인 하여 2030 세대에게 새로운 일상과 공간을 선사한다. 호텔의 유휴 자원을 지역과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

서교동 공유복합시설은 고유한 문화와 감성으로 만들어진 홍대 지역 커뮤니티와의 밀접한 결합을 가장 큰 가치로 두었다. 전통적인 호텔 구성에서 벗어나 거리 상권의 휴먼스케일과 로컬 경험을 담아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성장하는 마을(Community Village)을 목표로 한다.

보행로에서 자연스럽게 접근 가능한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보행자와 지역 주민들의 활동영역을 넓혔다.

보행로와 이어지는 저층부에는 대규모 녹지 공간과 리테일을 배치하고, 벽돌과 박공지붕이 모여 거리에 따뜻함을 더했다.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우수상

신사스퀘어 @예림종합건축사사무소 | 황임규

위치 강남구 강남대로 652	층수 지상 15층 / 지하 5층	연면적(㎡) 35,044.29㎡	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주 김정훈
--------------------	----------------------	----------------------	----------------------	------------

도시의 길 속에 길을 잇다 '도시적 욕망의 중재자'

신사스퀘어는 한남대교 남단, 진입부에 위치한다. 강남을 통해 도시로 들어오는 첫 관문에 낯설지 않은 새 얼굴을 만들고자 하였다. 수직적인 타워에서 수평적인 포디움으로 연결되는 디자인은 하나의 면으로 이어져 거대 도시 속도감에 부응하고, 남-북측면은 전체 커튼월 유리로 자연과 도시를 반사하여 거대한 덩어리로 무거워 보이지 않도록 석재 Facade와 분리했다. 대지의 후면부는 가로수길에서 이어진 세로수길의 마지막 지점에 닿아있다. 110m 길이의 거대 불럭과 건축에 사람들의 보행이 가로막히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건축 내부와 외부로 즐길 수 있도록 열린공간을 계획했다.

'신사스퀘어'가 도시와 건축, 자연과 건축, 건축과 인간과의 관계속에 존재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활용하여 건축이 도시적 욕망의 중재자이자 중간자로 존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우수상

연의생태학습관 구보건축사사무소 | 조윤희, 홍지학

위치
양천구 신정아파트 12

층수
지상 2층

연면적(m²)
319.37m²

용도
관광휴게시설

건축주
양천구청

미루나무와 공생하는 공원 건축

연의 생태공원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작은 유수지 공원이다. 생태학습관이 들어설 자리에는 다섯 그루의 키 큰 미루나무가 자리를 잡고 있다. 연의생태학습관은 기존의 나무를 베지 않고 미루나무 뒤에 숨어 학습관이 공원의 배경이 되었다.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외부동선은 상황에 따라 길이 되고, 배움터가 되고, 정원이 되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원을 조망하는 장소가 된다. 그렇게 공원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건물내부로 들어오도록 동선을 배치하였다.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공간들은 마루 위에 분산된 방의 구조로 설계해 그 사이로 지나다니는 방문자들의 시선과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속된다. 공원을 거니는 행위가 건물에서도 연속될 수 있도록 방과 방 사이의 길을 강조하였다. 연의생태학습관은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건축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우수상

원서작업실 ㉔종합건축사사무소 시건축 | 유재은

위치
종로구 창덕궁길 130

층수
지상 2층 / 지하 1층

연면적(㎡)
599.21㎡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주
유재은

서울의 오래된 터에 자리 잡는 법 ‘다섯 개의 지붕, 하나의 마을’

북촌과 원서동의 오랜 역사를 지닌 한옥들은 규모가 작다. 건물을 새로이 지으면서도, 그것이 북촌의 원형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여러 개의 작은 형상이 모여 하나의 군집을 만드는 형태를 만들었다. 원서 작업실의 지붕 구조는 전통적인 맞배지붕의 재해석으로, 다양한 높이와 형태의 지붕들이 중첩되어 복잡하면서도 섬세한 형태를 만들어낸다. 용마루를 빙거 접으면 상승하는 처마선을 생기는데, 이러한 지붕들을 중첩시켜 한옥의 상승하는 처마선을 표현했다. 지붕은 동남쪽으로는 광활한 개방감을 제공하며, 북서쪽으로는 절제된 형태로 표현된다. 전통과 현대 건축이 공존하는 시대에 ‘원서 작업실’은 조화와 균형을 통해 공존의 해법을 이야기 한다.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심사위원특별상

경리계단길 (주)요약건축사사무소 | 정상경, 류인근, 김도한

위치
용산구 회나무로 12길 3-17

층수
지상 5층

연면적(㎡)
140.14㎡

용도
근린생활시설

건축주
(주)에이앤에이

고립된 경사 대지의 자생적 건축

차가 닿지 않는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땅, 경사 지형에 있는 땅, 인접한 건물이 경계를 침범해 있는 땅, 일조의 향과 폭이 작은 땅에 올린 '경리계단길'은 이 모든 악조건을 포함한 땅이었다. 경리계단길은 140㎡, 40평 남짓의 작은 건물이다. 이 작은 건물에도 적용되는 법, '길 위의 모든 건축물들은 4m 이상의 도로에 2m를 면해야 한다'는 법의 해석과 적용을 해결하며 설계를 해야 했다. 현황도로를 길로 연결하고, 4m 도로를 확보 후 그 도로의 끝 자락을 건물의 옥상까지 연결했다. 그래서 도시의 계단길에서 건물의 계단길로 이어지고 확장되어 경리단길의 풍경을 공유한다. 계단은 건축물의 부분이지만, '경리계단길'의 계단은 단순한 층간 이동의 수단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붕과 골목의 연장이 되어, 고정적 정의를 넘어선 주요한 창작의 대상으로 자리한다.

LG아트센터 서울 및 LG디스커버리랩 서울

㉔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안도다다오건축연구소 | 김태집, 안도다다오

위치
강서구 마곡중앙로 136층수
지상 3층 / 지하 4층연면적(㎡)
41,634.24㎡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주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몰입하는 즐거움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 특별전은 '건축가의 방'이라는 콘셉트로
몰입을 실현했던 사람들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민간 건축물의 사회 환원

LG 아트센터 서울 및 LG디스커버리랩 서울은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위한 공영장으로서 탄생했다. LG와 서울시가 강서구 마곡지구에 R&D 단지인 'LG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면서 공공기여시설로 건립이 추진된 것으로, LG는 2000년부터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LG아트센터의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마곡지구에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여 서울 시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제13회 UAUS 파빌리온 기획전 <Collage Haus : 주거의 재발견>

지하3층 특별전시실

지난 2024년 8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펼쳐진 UAUS 파빌리온 전시 후 연결된 모형전시이다. '현대인을 위한 주거'가 무엇인지 탐구하여 주거의 잠재력을 시험하고 재구조화하는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공유한다.

「2024 서울, 건축산책」 공모전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지하2층 라이브러리

「서울, 건축산책」 공모전은 청소년과 시민에게 서울시 곳곳에 산재한 건축물을 통해 건축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행사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꾸준히 시민과 소통을 우선으로 건축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2024 대학협력 모아타운 프로젝트

지하2층 통로전시실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의 혁신적인 디자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연구해 낸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2024 빈집활용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

아워갤러리

시민들의 빈집에 대한 관심 제고와 빈집 활용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현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이끄는 공모전 당선작을 공개한다.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홍보전

아워갤러리

주거약자 집 수리 사업인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서울시,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동행파트너십을 맺어 함께 주거약자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